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내년말 문 연다

광주·전남 첫 재난안전체험관
260억원 들여 오치동에 건립
8개 체험존·23개 체험시설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조감도.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이 내년 말 개관된다.

1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재난 유형의 다양화·대형화와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체험 교육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총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100억원, 시비 160억원 등이 투입된다.

안전체험관은 부지 1만4000㎡, 연면적 7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0년 말 개관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및 설계 경제성 검토(VE) 절차가 진행 중

이다. 체험관은 광주시교육청이 무상으로 제공한 북구 오치동 자연과학고 앞에 들어선다. 동광주IC·용봉IC·문흥IC와 10분이 내 거리로 광주는 물론 전남에서도 접근성이 좋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 추진으로 체험관 완공 시 예상되는 교통체증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기본방향은 'Lighting Rope' (안전을 밝히는 빛줄기)로 재난 상황에서 주어진 단 하나의 '도움 줄'을 꼭 움켜쥔 손의 형상을 구현했다.

체험관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 재해 및 사회적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8개 체험존, 23개 체험시설로 구성됐다.

산악 안전과 급류 대피, 지진 및 재난 후 공동체 생존, 화재, 교통재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악 안전체험은 무등산을 기반으로 했고, 급류 대피 체험은 광주천 등 하천·계곡 범람 등에 대비한 급류 횡단과 침수 차량에서의 탈출 등 색다른 안전체험 시설이 도입된다.

지진 체험 및 버스 안전체험에는 4차 산업혁명 주력사업인 VR산업을 접목해 재난현장의 실감성을 살리고 교육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미취학 아동 대상의 어린이 종합 안전체험과 사이버중독 및 폭력 등의 학생 안전관 등도 들어선다.

특히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를 적용, 장애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중심의 재난극복 패러다임도 제시할 계획이다.

체험존은 70분 코스로 운영하며 체험존별 최대 20~30명, 하루 최대 900명, 연간 25만명의 시민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이 맡게 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은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의식 확보에 기여하는 생존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한 광주·전남의 안전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제2기 해외 유학생 광주 관광 홍보단'이 지난 12일 광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 제공>

해외 유학생 광주관광 홍보단 활동 돌입

市, 6개국 22명 선정 발대식

광주시는 '제2기 해외 유학생 광주 관광 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고 14일 밝혔다.

앞서 홍보단은 지난 12일 광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6개국 22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해외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주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게 된다.

특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

편의를 위한 외국어 메뉴판 개선사업, 수영대회 관광 서포터즈활동 등 광주 관광 알리기에 나선다.

또 지역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와 'K-POP 댄스배우기', 'K-뷰티 메이크업 따라하기' 등 광주의 맛·멋·흥을 체험한 후기를 UCC 또는 게시글로 작성해 광주 관광의 숨은 매력을 해외로 전파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명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해외 유학생 홍보단이 다양한 시각으로 광주 문화·관광의 잠재력을 전세계에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원하는 곳 어디든 강사 파견 동구 '찾아가는 배달강좌'

10명 학습모임 누구나 신청

광주시 동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으로 평생학습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운영한다.

배달강좌는 시·공공적 제약이 있는 기존 평생학습과정과 달리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방문평생학습서비스다.

동구에 주소를 둔 성인 10명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문교양·문화예술·전문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11월까지 운영한다.

동구는 모임별로 교재비·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를 주1~2회, 회당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최대 20시간까지 지원한다.

동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주변 생활밀착형 공간, 공공장소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장소·분야에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25개 배달강좌를 운영해 수강생 32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문의 동구 청년체육과 평생학습계 062-608-2324.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희뿌연 연기 내뿜던 '추억의 연막소독' 역사의 뒤안길로

남구 친환경 방식으로 바꿔

뿌연 연기를 내뿜는 연막소독 방역차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남구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하계 방역부터 연기와 냄새가 없는 친환경 방역 방식인 연무 소독 방역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던 연막 방역은 경유와

약제를 희석해 살포하는 방식으로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연기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남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에 약제를 희석해 살포하는 친환경 소독방식의 연무소독으로 방역 방식을 전환한다.

연무 소독방식은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방역은 오는 5월 13일부터 10월 21일 까지 관내 16개 동에서 실시된다.

남구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방역 작업"이라며 "냄새와 연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지역 빅데이터 허브 사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플랫폼 구축 박차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빅데이터 허브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교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를 비롯한 6개 시·도가 제안한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계획 적절성 등을 심사한 결과 광주를 포함한 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광주시가 제안한 사업은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7대 안전지수에 대한 빅데이터 허

브플랫폼 구축사업이다.

특히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생활안전 등 7대 안전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해 활용하고 시민에게도 개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산하기관, 자치구, 공사·공단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학적·객관적인 의사결정 및 예측 가능한 정책 판단 등 시정 패러다임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좀더 쉽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빅데이터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빅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공공빅데이터 개방 확대, 민원, 관광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시정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근간으로 시정정책과 접목해 광주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4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중점단속

광주시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함께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금지 구간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등이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신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한 뒤 위반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1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했고,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안전 다짐대회, 가두캠페인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공익광고, 홍보영상,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노면 황색 복선과 보조표지판을 설치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월까지 노후도로 19개 노선 포장 공사

광주시는 16일부터 7월까지 90억원을 투입해 노후도로 19개 노선(총 33km) 포장 공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평소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무진대로·상무대로·빛고을대로·월드컵4강로 등 주요 관문 도로는 시민 불편을 줄

이기 위해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 전인 5월까지 야간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수영선수권대회에 대비해 광주 주요 관문 및 경기장 주변 도로인 침단과 기로 등 6개 노선도 정비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